

아시아지역 민족복식의 형태미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이 재 정 · 김 윤 희* · 손 민 주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겸임교수*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패션디자인학과 석사과정

요 약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민족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아시아지역이 정치, 경제 등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문화요인과 결합하면서 아시아 풍은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하나의 문화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패션에 적용 가능한 아시아지역 민족복식의 조형적 특징을 추출하여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아시아지역 복식의 융합된 형태를 반영한 상품 기획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연구의 범위는 16세기말~19세기의 아시아 민족복식에 관한 선행논문과 문헌 자료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2000년대 이후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아시안 룩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대 패션에 적용 가능한 아시아지역 민족복식의 조형적 특징을 첫째, 직선적 실루엣의 비구조적인 평면성 둘째, 유기적인 울동미 셋째, 형태의 가변성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3가지 조형적 특징을 토대로 형태적 접근 가능성을 모색하여 아시아지역의 민족복식을 응용한 10종의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대 패션에 적용 가능한 아시아지역의 민족복식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작품제작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면형의 직선적인 실루엣을 통한 공간적인 형태미는 아시아 룩의 전통미를 표현해 주는 동시에 현대 패션의 조형적 요소로도 활용되고 있어 현대적인 재해석을 할 경우 그 가능성이 무한하다. 둘째, 아시아지역의 민족복식에서 보이는 자유로운 여밈은 다양한 비균제적인 미를 표현하는 방법이며 특히 현대적인 이미지로 비례, 균형, 울동미 등을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그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구조적인 평면성을 통해 근본적인 선을 발전 변형시킨 디자인 개발은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이 가능하여 패션 테마의 다양성과 확대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주제어: 아시아지역, 민족복식, 비구조인 평면성, 유기적 울동미, 형태의 가변성

I. 서론

20세기 들어서 패션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포스트모더니즘 이후로 다원주의와 문화적 절충주의의 성향이 짙어졌다. 이로 인해 다양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현대 패션은 사회적, 문화적 의미의 전달자로서 하나의 양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패션의 요소와 미적 개념들이 서로 절충되어 새로운 미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를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하나의 문화사조로 인정하는 인식은 패션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20세기를 기점으로 서구 패션에서는 동양적 이미지가 다양성을 띄고 발전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동서양 패션 문화 속에 수용되어 있는 아시안 룩의 특징을 알고 세계화를 위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면 아시아 스스로가 주도하는 패션 문화의 창조를 위한 밑거름과 국제화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현대사회가 글로벌 빌리지(global village)라는 흐름이 두드러지게 부각되면서 아시안 룩에서도 다차원적으로 절충과 융합하는 경향이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론적인 정립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아시아지역의 민족복식의 개념을 정립하여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의 민족복식 요소가 함께 공존하는 패션의 형태미를 분석하여 현대 패션에 적용 가능한 아시아지역 민족복식의 조형적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시아지역의 민족복식 특징과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아시아복식의 특징을 디자인 형태로 분석하고 현대 패션에 적용 가능한 아시아지역 민족복식의 조형적 특징을 추출하여 세계화, 현대화, 생활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논문과 문헌자료에

나타난 16세기말~19세기의 아시아 민족복식과 2000년대 이후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아시안 룩을 바탕으로 형태미를 분석하여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첫째, 아시아 지역을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남부아시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복식 디자인을 실루엣 중심의 형태적 특성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현대 패션에서 아시아지역의 민족복식이 응용된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어떻게 수용, 융화되어 표출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셋째, 현대 패션에 적용 가능한 아시아지역 민족복식의 형태적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정립한 후 총 10점의 패션디자인을 도출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아시아지역의 민족복식 고찰

1) 동부아시아 민족복식

우리나라가 속한 동부아시아의 경우 북방계 호복과 남방계 포복식이 융화된 카프탄형의 복식 형태가 특징이며, 이는 여름은 따뜻하고 겨울은 춥고 습윤한 대륙성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의복의 형태를 띠고 있다. 도교, 유교, 불교, 한자문화권 등 종교의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적 특징을 반영, 북방계와 남방계의 복식이 융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동부아시아의 민족의 상은 기후적 영향으로 평면적 구성의 넓은 것, 사각형의 소매, 허리띠가 공통적 특징이며 동부아시아에 속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이 대표적이다.

한국 조선시대의 복식은 한복의 기본형식이 성립되고 미화 현상이 현저했던 시기이며 우리 전통복식미를 대표할 수 있는 복식이다.¹⁾ 대표적인 의상으로는 저고리와 치마, 바지가 있다. 형태면에서



<그림 1> 고종의 면복
(출처: 『복식문화』, 1996, p.42)



<그림 2> 황원삼
(출처: 『복식문화』, 1996, p.50)



<그림 3> 조선중기 장옷
(출처: 『수원박물관 특별기획전 도록』, 2011, p.49)



<그림 4> 조선중기 검저고리
(출처: 『수원박물관 특별기획전 도록』, 2011, p.50)

드러난 조선후기 복식의 미적 특징은 평면적 구성의 직선재단이지만, 제작자의 의도가 유입되고, 착용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선의 미가 있었다. 한국의 복식은 자연스러운 여유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한편 결정되지 않은 가변성과 풍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형태미를 갖는다.²⁾

유이황 외(1996)에 따르면 조선시대 신분제도에 따라 양반 계급의 여성들은 남편의 관직에 따라 그의 신분에 맞는 복식을 착용하였으며, 관직을 갖지 않은 반가 부녀자의 복식도 어느 면에 있어서는 격차가 있었으나 평상복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일반 반가 여인들과 서민 여성들의 평상복은 모두 고유의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³⁾ 의복의 디테일은 저고리에서 직선형 옷깃인 목판깃의 길과 소매는 직선형으로 나타났다. 16세기 중반까지 H라인을 보이며 상하의가 거의 1:1비율을 보이던 여성복식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각종 미인도에서 볼 수 있듯이 코쿤 실루엣(cocoon silhouette)로 변화하였다.⁴⁾ 조선시대 왕복에는 면복, 조복, 상복, 편복이 있다.⁵⁾ <그림 1>은 면복의 유물로 고종의 9장복이다. 이것은 어깨에 비해 도련의 폭이 넓은 포로 소매의 폭이 포길이의 절반에 이르는 광수포로, 착장했을 때 양감이 풍성하게 살아 있어 군왕의 표신이라는 용도답게 장엄함을 주어 군왕으로서의 위엄을 살려 주고 있다. 그리고 의, 상, 중단, 폐슬에는 각각 선을 둘러 주어 긴 선의 흐름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의장에 있어 통일감을 주고 있다.⁶⁾ 조선시대 왕비

및 내외명부들이 입은 대표적인 궁중 여자 예복으로는 적의, 원삼, 활옷, 당의 등이 있다. 이 중 원삼, 활옷은 궁중 뿐 아니라 일반 여성들의 혼례복으로 이용되었다.⁷⁾ <그림 2>의 원삼은 여밈이 합임으로 합임선의 수직선은 속에 무지기 치마를 입어 사선으로 넓게 퍼진 스란치마의 선과 조화를 이룬다. 또한 소매 끝의 색동과 백한삼은 착용자가 손을 모아 쥐었을 때 세로로 향한 시선의 움직임을 더욱 강조해 준다.⁸⁾ 조선시대 서민 여자는 저고리와 적삼, 치마, 단 속곳, 바지, 속속곳 다리속곳에 버선과 짚신을 기본으로 하였다. 장옷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후 겉에 입은 조선시대 여성의 가장 대표적인 외출복이다. <그림 3>은 겹장옷으로 녹색이 뚜렷이 남아있다. 실선 안으로 들어달린 목판 깃과 겨드랑 아래 사각접 음무가 달린 것이 특징으로 길감과 다르게 자주색 연화문 단으로 장식하고 있다. 겨드랑이에서 이어지는 소매는 일자형이며 소매 끝에 흰색 거들지를 달아왔다. 현재 고름은 소실돼 달려있지 않다. <그림 4>의 저고리는 치마와 함께 입은 여성의 대표적인 옷옷이다. 깃 모양이 목판 당코 깃이고 소매가 겨드랑이에서 시작돼 소매 끝에서 완만하게 줄어드는 모양으로 전형적인 17세기 중반기 여성의 저고리 양식이며 소매 끝에 흰색의 거들지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대표적 의상은 남녀 모두 <그림 5>9), <그림 6>의 기모노로 대표되는데 그 기본형은 에도시대 이래로 변화가 없었다. 다만 시대에 따라



<그림 5> 기모노
(출처: 『Asian costumes and textiles』, 2001, p.257)



<그림 6> 기모노
(출처: 『Asian costumes and textiles』, 2001, p.255)



<그림 7> 치파오
(출처: 『Asian costumes and textiles』, 2001, p.234)



<그림 8> 포
(출처: 『Asian costumes and textiles』, 2001, p.239)

서 옷의 폭이나 소매 폭, 길이, 깃의 크기 등이 달라지며, 특히 문양과 색의 감각이 뛰어나다.¹⁰⁾ 기모노는 깃, 소매부리, 옷자락 등에 개방부분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직선으로 재단하여 간략하게 만드는 남방계 의복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¹¹⁾ 기모노의 형태적 특징은 직선의 이미지로 좁은 장식 공간과 함께 규격적인 선을 표현한다.¹²⁾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평면구성, 직선형 깃과 좌우를 포개어 여미는 사선 형 전개 형 여밈, 목덜미가 보이게 옷깃을 겹쳐 입는 착장법과 겹쳐 입기를 들 수 있으며, 여자의 벨트는 허리에 매는 오비(띠)와 일본 전통 종이 접기 기리카미가 패션디자인의 기법으로 응용되어 나타나는 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형태적 특징이다.¹³⁾ 남녀 모두가 착용하는 나가가 일본 전통을 대표하며 기모노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나가는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하지만 여성 기모노는 파임이 크고, 남성용과 달리 소매 옆 솔기 부분이 터져 있는 것이 다르다.¹⁴⁾ 기모노란 본래 옷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흔히 일본 여성이 입는 나가기만을 한정하여 기모노라고 하기도 한다. 기모노를 펼쳐 놓으면 완전 직선형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매의 겨드랑이 부분이 트여 있다. 기본적으로 원피스 형태이며, 그 위에 덧옷을 입는 구조이다. 고름이나 단추 없이 옷을 입고 오비라는 띠를 묶는다.

중국의 16세기말~19세기 청은 만주의 여진족이 세운 왕조로서 복식에 있어 ‘남자는 청의 제도

를 따르고, 여자는 따르지 않아도 좋다’는 방침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남자는 만주족 복식을 착용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하였으나, 한족여자들은 계속 한족복식을 착용할 수 있었다. 복식의 형태는 한족의 <그림 8>의 포와 만주족의 폐가 기본이 되었다. 포는 명대에 비하여 품이 줄었고, 옷깃을 여밈 때 띠 대신에 단추를 사용하였다.¹⁵⁾ 청대의 포는 품이 넓은 사다리꼴이며, 마제수가 달린 경우가 많았다. 길이는 유행에 따라서 무릎부터 발목길이까지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중국의 여성용 포는 이른바 치파오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¹⁶⁾ 중국 여성의 대표적 의상은 원피스형 드레스인 <그림 7>은 치파오로 중국적 특색을 나타내는 차이나 칼라 모양과 치마 단에 슬릿이 특징이다. 치파오는 넉넉하고 허리선이 곧고 평평한 형태로 아시아 지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직선재단을 한 평면적인 의복이었다. 그러나 1800년대 이후 허리가 꼭 맞으며 소매통이 좁은 형태를 띠면서 점점 개량되어 전통적인 재단법은 사라지고 원래의 고유한 특징은 깃과 트임에만 남아 있게 되었다.

2) 동남아시아 민족복식

동남아시아 지역의 민족복식은 아열대 및 열대 기후의 지역으로 한 장의 천으로 만든 통치마 형태의 사롱형의 민족의상이 특징이다. 습윤 열대기후지역에서는 재단봉제를 하지 않은 긴 천을 몸에 둘러 늘어뜨리는 권의 형태나 허리둘레에 천을 감

는 요의 형태가 많았다. 동남아시아에 해당하는 국가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¹⁷⁾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 중 유럽제국 등에 식민지화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그런 까닭에 의복도 서양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독자적인 형을 유지하고 있다. 기후상 직물이 오랫동안 남아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초기 복식형태는 석상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당시에는 남녀 모두 사각형 천을 몸에 두른 후 허리에서 주름을 잡거나 묶었으며, 형태는 짧은 로인클로스형, 간단한 <그림 9>와 같은 사롱형, 헐렁한 바지형 등으로 다양하다. 어깨에는 천을 둘러서 가슴을 전체적으로 가리거나 부분적으로 드러내며, 관, 목걸이, 팔찌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수코타이 왕조 이전부터 보이는 이러한 복식형태는 후대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¹⁸⁾ 의복의 종류는 <그림 10>의 파 사바이(pha sabai), 파 사롱(pha sarong), 파 총카벤(pha chongkaben), 파신 등이 있다. 파 사바이는 어깨에 대각선으로 두르는 천을 뜻한다. 가로 30cm, 세로 160cm 정도인 사각 형태로,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몸을 한두 바퀴 감아 돌린 다음 남은 부분은 왼쪽 어깨에 걸쳐서 뒤로 늘어뜨리거나 금속 장신구를 고정시킨다. 파 사롱은 통 형태의 남자 하의를 통칭하는 경우가 많다. 파 사롱은 대부분 가로는 2미터, 세로는 약 1미터이며, 허리에 플리즈 주름을 잡아서 고정한다. 파 총카벤은 한 장의 천으로 바지처럼 입을 방법, 또는 그러한 모양의 하의를 말한다. 착용방법은 인도의 도티(dhoti)와 비슷해서, 허리에 감싼 다음에 남은 부분을 다리 사이로 통과시켜서, 앞 또는 뒤에서 주름을 잡아서 고정한다. 착용할 때 여유분을 가감하여 옷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¹⁹⁾ 일반적으로 하의는 파능(phanung)이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봉제하지 않은 넓은 천 형태였으나, 차츰 그 형태가 변화하였다. 입을 때는 몸에 꼭 맞도록 두른 다음, 남은 부분은 앞 중심에서 두 세 개

의 주름을 잡아서 정리하고, 허리띠를 착용한다.²⁰⁾

필리핀의 대표적인 민족복식은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바린다와크(balintawak) 스타일과 파다디옹(patadiong)이 있다. 바린다와크는 무릎 정도의 길이이고 흰색의 풀 스커트(full-skirt)이다. 바린다와크는 메스티자복(mestiza)의 한 유형이다.²¹⁾ 메스티자복의 스커트 또는 드레스를 말하는 사야(saya)는 복사뼈까지 닿는 긴 길이의 것으로, 보통 앞은 1매, 뒤는 2~3매의 천을 이어 다트에 의해서 모양을 만들고 허리에 묶었다. 성장의 경우에는 트레인(train)을 붙이나, 일상복은 사야와 <그림 11>의 타피스(tapis: 오버스커트)로 사용한다. 원래 사야는 에스파냐의 드레스 스커트였다. 일찍이 필리핀에서는 남방계의 사롱(sarong)이 의복의 기초였으나 한때 중국의복의 형태를 취한 이후, 18세기에는 에스파냐복의 영향을 받아 사야로 변한 것이다. 또한 19세기 후반에는 멕시코와의 통상에 의하여 멕시코복의 영향으로 타피스를 더하여 오늘에 이르렀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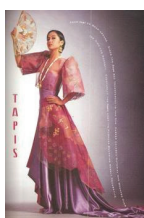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의 민족복식은 직사각형의 천을 접거나 몸에 두르거나 묶어서 착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하체에는 원통형의 사롱이나 긴 옷감을 하체에 둘러 입으며 남녀 모두에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지역에 따라 색상, 디자인 그리고 소재가 다른 <그림 12>의 카인(kain)이라고 불리는 길고 앞이 겹쳐져 있는 스커트이다. 이것은 앞쪽에 주름을 잡거나 엇갈리게 둘러싸면서 입을 수 있다.²³⁾ <그림 13>의 사롱은 발목길이의 원통형 치마이며 길이는 약 107cm, 둘레는 220cm 정도의 원통형 치마로 두 개의 좁은 천을 이어서 만들거나, 직물의 양끝 푸서를 연결하여 만든다. 카인 뺨장과 달리 플리즈 주름장식이 없으며, 옆술기가 막혀 있는 형태이다. 사롱은 머리 위부터 뒤집어 쓴 후, 몸에 잘 맞을 때까지 안쪽 끝을 잡아당겨 고정 한 후, 형겅 천으로 묶고 천으로 된 허리띠인 스타젠(stagen)을 감아 고정한다.²⁴⁾ 상의를 입을 경우에



<그림 9> 사롱
(출처: 'Asian costumes and textiles', 2001, p.141)



<그림 10> 파 사바이
(출처: <http://www.seaco.m.de/images/CLOTH01>, GIF)



<그림 11> 타피스
(출처: <http://www.seaco.m.de/images/CLOTH21>, GIF)



<그림 12> 카인
(출처: <http://img404.imeshack.us/img404/8356/bt2bx0.jpg>)



<그림 13> 사롱
(출처: 'Asian costumes and textiles', 2001, p.205)

도 다른 아시아지역 의복에서도 나타나는 평면재단형의 복식이었다. 여성의 상의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카프탄 형태의 카바야와 바주 뻠장(baju panjang), 튜닉형의 바주 쿠룽(baju kurung), 판초형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바주 보도(baju bodo), 그리고 어깨가 노출되거나 불리된 상의가 따로 없는 원피스형이다.²⁵⁾

3) 남부아시아 민족복식

남부아시아지역의 민족복식은 여성의 경우 드레이퍼리(drapery)형에 속하는 사리가 대표적으로 입혀지고, 남성의 경우에는 터번이 상징적으로 씌어졌다. 사리는 한곳도 재단이나 봉제를 하지 않고 기원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남아 왔다. 남부아시아에 해당하는 국가는 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이 있다.

인도의 민족복식은 드레이퍼리형에 속하는 사리가 대표적으로 입혀지고 남성의 경우 머리에는 터번이 상징적으로 씌어졌다. <그림 14>, <그림 15>와 같은 사리는 보통 폭은 0.9~1.2m, 길이 4.5~11m로 된 완전한 한 장의 천으로 천 끝을 감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고 도티의 변형이라고 하는 사리는 한 곳도 재단이나 봉제되지 않은 천을 허리에 두르거나 가슴을 감아주는 형식의 권의형이다. <그림 16>의 도티는 오랜 기원을 갖고 있는 인도 남성의 대표적인 의복으로 면직물이나 면사와 견

사를 섞어 짠 흰색의 천을 다리와 허리에 감아 바지처럼 착용한 것이다. 사리는 도티와 함께 그 기원이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는 인도여성의 대표적인 복식이다. 인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리는 길고 넓은 천 하나를 몸에 감아 상체와 하체 모두를 가리는 방식으로 착용된다. 사리는 세 부분으로 구분할 때, 사리의 세로방향으로 원단 양쪽 끝 가장자리 선장식, 사리의 끝단 장식부분, 중심이 되는 넓은 바탕부분으로 구성된다.²⁶⁾

네팔의 민족복식 중 중간 산악지역 남자의 옷으로 상의는 보토(bhoto)와 슈루월(surwal)이 있다. 보토는 원래 소매를 붙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태상은 깃부터 복부에 걸친 곡선이 특징이다. 이 위에 서민은 조끼, 상류계층과 왕족계급은 뒤가 넓은 검정색의 상의를 입는다. 여자복식은 <그림 17>의 차운반디(chaubandi)로 초승달처럼 흰 앞여밈이 있는 여성용 상의로, 네 곳을 끝으로 묶어 고정하는 것 등 모든 면에서 남성의 레베다와 거의 같지만 허리를 간신히 가릴 정도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파리아는 40cm 폭에 길이가 3m 이상의 면직물로 만든 파투카(patuka)라는 긴 허리띠를 여러 번 감아 고정한다. 네팔의 북부지역은 카프탄 형식의 투둥(thebung)이라는 상의와 모직으로 된 바지를 입고, 그 위에 길고 헐렁하며 긴소매가 달린 긴 외투형, <그림 18>의 추바(chuba)를 덧입



<그림 14> 사리
(출처: 『Asian
Costumes and
Textiles』, 2001,
p.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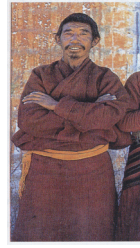
<그림 15> 사리
(출처: 『아시아
전통복식』, 1996,
p.207)



<그림 16> 도티
(출처: http://www.exoticindiaart.com/kurtapajamas/ivory_dhoti_with_zari_border_yp10.jpg)



<그림 17> 차운반디와
파리야 차림
(출처: 『아시아
전통복식』, 1996,
p.207)



<그림 18> 추바를
입은 모습
(출처: 『아시아
전통복식』, 1996,
p.209)



<그림 19> 사롱
(출처: 『아시아
전통복식』, 1996,
p.210)

는 것이다. 추바는 앞여밈을 깊숙이 겹쳐 여민 후, 천으로 된 끝으로 허리를 고정하여 입는데, 이때 옷의 길이가 종아리나 무릎길이 정도가 되도록 옷을 허리끈 위로 잡아당겨 허리부분이 볼록하게 되도록 입는다. 여자 복식은 소매가 없는 길고 혈렁한 외투처럼 생긴 안지(angi)이다. 안지의 여유분은 양쪽 가장자리 부분으로 잘 정리한 후, 마치 맞주름을 잡듯이 뒷 중심을 향하여 접어 넘긴 후 끝으로 허리를 묶어서 고정한다.

스리랑카의 민족복식은 디자인이 간단한 형태인데 면 랩 오버(wrap over)형태의 사롱(sarong)이나 사리를 입는다. <그림 19>의 사롱은 허리에서 발목까지의 길이이고 몸에 딱 맞고 소매가 달린 블라우스와 함께 입었다. 사리는 블라우스의 왼쪽 어깨 위에 늘어선 한쪽 끝이 허리에 모아진 긴 천이다. 남자 또한 착용자의 직업에 따라 혈렁한 흰색 셔츠와 함께 입거나 또는 위는 입지 않고 면 사롱의 하의로 입었다.

4) 서남아시아 민족복식

서남아시아지역의 여성복식에서는 몸 전체를 감싸는 형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란 여성들은 철저하게 <그림 20>의 차도르(chador)를 쓴다. 서남아시아의 기후는 사막성 건조 기후이므로 전신을 감싸는 옷이 주로 입혀졌다. 서남아시아에

해당하는 국가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이 있다.

이란의 민족복식 중 여자의 기본의상은 아주 넓은 스커트와 바지 위에 긴소매가 달린 혈렁한 <그림 21>의 튜닉이고, 이 튜닉은 색, 길이, 디자인이 다양하다. 16세기경부터 착용되기 시작한 짧은 소매에 길이와 무릎 정도 길이의 커다란 직사각형 망토 형태를 보이는 남성용 외투 아바야(abaya)를 주로 남성이 착용하지만, 일부 이슬람여성들은 얇은 검은색 천으로 만든 아바야를 외투나 얼굴을 가리는 베일과 함께 장옷처럼 뒤집어서 몸 전체를 가리는데 사용한다. 아바야를 머리에 뒤집어쓰기도 하지만 대개는 어깨에 느슨하게 걸쳐 입는다.²⁷⁾ 여성의 전통적인 외출복 형태는 바지에 양말이 달려있는 차크르(chakchir)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차도르로 구성되었다. 때로는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루밴드(ruband)라는 베일과 차도르를 같이 착용하기도 하였다.²⁸⁾ 차도르는 직경 5~6m의 큰 반원형 보자기로 머리에 써서 얼굴을 보이는 채로 전신을 감싸 안아 턱에서 안쪽으로 잡아 쥐는 방식으로 발끝까지 감춰진다.

아프가니스탄의 남자복식은 허리에 벨트를 맨 넓적다리 길이의 긴 소매를 가진 셔츠위에 조끼를 입고 혈렁한 바지를 입었다. <그림 22>, <그림 23>



<그림 20> 차도르
(출처: <http://2.bp.blogspot.com/>)



<그림 21> 튜닉
(출처: 'Asian Costumes and Textiles', 2001, p.53)



<그림 22> 브르카
(출처: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그림 23> 브르카
(출처: '아시아 전통복식', 2004, p.170)



<그림 24> 아바야
(출처: 'Asian Costumes and Textiles', 2001, p.44)

의 브르카(burka)는 머리부터 발목까지 전신을 풍성한 자루로 감싼 듯한 모양의 겹옷이며, 눈 부분에는 망사로 가려져 있다. 시골 여성들은 일할 때 브르카를 착용하지 않지만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얼굴을 가리거나 몸을 피하고, 엄격한 이슬교도이므로 여성은 신앙에 따라 전신을 검정색 계통의 베일로 덮어쓰고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아프가니스탄의 북부 지방에서는 헐렁하고 소매 없는 엉덩이 길이의 재킷을 입거나 풍성한 긴 줄무늬 코트를 착용하였다. 남부지방의 파키스탄 국경지방은 길고 풍성한 바지에 카뮤즈와 다소 유사한 긴 소매의 헐렁한 붉은색 튜닉 드레스를 입으며, 주름진 머릿수건을 착용하였다. 이것은 대부분 여성 의상의 기본으로 튜닉은 길이나 디자인이 다양하였다. 남성은 상의로 헐렁하고 무릎까지 오는 긴 소매의 셔츠인 페롱을 입고, 자루같이 불룩한 바지인 톰본을 입는데 허리에서 끈으로 매는 스타일이다. 터번은 코와 위에 감는 것으로 이를 감을 때에는 끝을 약 1m 정도 옆이나 뒤로 늘어뜨려 놓았다. 이것은 장식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더위나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추울 때에는 입과 얼굴을 가리는데 사용하였다.

이라크의 민족복식의 형태는 다른 아랍 국가들이 입는 것과 비슷하나 명칭과 스타일은 다르다. 수도 바그다드와 그 부근에서 여성들은 하쉬미(hashimi)라고 불리는 긴소매가 달린 헐렁한 튜닉

드레스를 입었다. 북부의 쿠르드인은 부족에 따라 다양한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 여성의 옷은 줄무늬가 있는 유생의 면직물로 만든 길고 헐렁한 하쉬미를 기본으로 하고, 벨트나 새시를 기호에 따라 착용하였다. 스카프는 머리와 얼굴 주위에 늘어뜨리고 그 위에 유색의 터번을 쓰며, 터번에는 술을 달거나 보석과 주화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남부와 중부 지방의 여성들은 하쉬미를 착용하고 종종 목 주위, 앞의 아랫 부분, 소매의 가장자리를 은이나 금팔찌, 귀걸이 발찌, 코걸이, 여러 줄의 유색 구슬로 장식하였다. 폭이 넓은 검은색 아바야 망토는 소녀가 일정 연령에 이르렀을 때 처음 입는 것으로 의상에서 필수적이었다. 여성들은 하쉬미 밑에 발목까지 오는 폭이 넓은 바지를 착용하였다. 남성 의상은 기본적인 의상 위에 <그림 24>와 같은 형태의 아바야를 착용하는데, 아바야는 낙타털로 만들어지며 흰색, 갈색, 검은색 또는 무지이고 앞의 아랫부분과 소매 트임을 끈으로 매우 정교하게 장식되었다.

2. 아시아지역 민족복식 특징 비교 및 분석

동부아시아 지역의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이 있으며, 중국에서 형성된 도교와 유교, 불교의 수용, 한자문화권이라는 공통점에서 종교와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특징은 북방

계와 남방계의 복식이 융화돼 나름의 독자적인 형태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민족복식은 공통적으로 카프탄형(caftan)으로 소매가 있는 앞트임의 전신 의를 여며 입는 형태로 평면적 구성의 넓은 깃과 직선형 소매, 허리띠가 공통적 특징이다.²⁹⁾ 시대나 나라별로 옷의 폭이나 소매폭, 길이 등이 다양하지만 대체로 직선형의 실루엣과 직선재단의 평면적 의복 형태로 허리띠나 끈을 통해 몸의 실루엣을 강조하는 복식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원칙적으로 앞이 나누어져 있어 앞을 여미고 끈으로 매는 입는 형태적 특징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이지만 어느 정도 체형에 맞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본적인 복식은 긴 천을 허리에 두르는 요의, 요권의 형태이다. 한 장의 천으로 만든 통치마 형태의 사롱형, 허리끈, 술이 공통적 특징이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는 봉제하지 않은 사각형의 넓은 천을 두른 후 남은 주름을 잡아 몸에 맞도록 고정하는 방식이며, 특징은 하나의 봉제선을 처음으로 원단에 재단한 사롱형 의복이라 할 수 있다.

남부아시아 지역의 국가는 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이 있으며 민족복식은 드레이퍼리형의 형태와 화려한 장신구가 공통적 특징이다. 특이한 점은 네팔은 지역에 따라 옷의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에 따른 기후의 차이가 복식의 형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지역은 장방형 또는 반월형의 천을 어깨에 걸쳐 몸을 감싸 입는 의복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천을 둘러서 입는 옷은 체형에 관계없이 착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천을 느슨하게 두르면 통풍성이 우수하고, 몇 겹으로 밀착시켜 두르면 보온성이 뛰어난 특징이 있다. 벗었을 때는 간단하게 접어서 부피가 크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편리함도 있다. 의상이 인체에 붙지 않아 여유가 있어

보이며, 동작에 따라서 생기는 음영이나 수직선, 사선 등의 자연스러운 주름으로 인해 우아하면서도 아름다운 형태미를 연출한다.

서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이 있으며 민족복식은 인체의 윤곽선을 드러내지 않고 몸 전체를 감싸는 형태가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형태가 특징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지역을 4개로 구분하고 각 나라별 디자인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옷감을 몸에 맞도록 재단해 입는 방식이 서양의 방식이라면 아시아지역은 옷감 그대로의 직선적인 형태를 응용해 만드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다양한 실루엣과 형태적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단순한 직선형 실루엣의 형태만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작품제작에 표현 할 아시아지역 민족복식 형태의 공통적 특징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직선적인 실루엣의 평면형으로 착용자의 바디에 의해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으로 착용자에 의해 다양하게 연출되고 있다. 둘째, 정형화되지 않은 비구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자연스러운 여유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한편 결정되지 않은 가변성과 풍성함이 조형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아시아지역 구분에 의한 민족복식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III.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아시아지역 민족복식 특징

2001 S/S~2011 S/S 컬렉션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아시안 룩을 조형적 형태미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상반된 특성으로 도출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패션디자인으로 그 응용이 활발하

<표 1> 아시아지역 민족복식 형태적 특징

	국가	대표 복식	형태	디테일	
동부 아시아	한국	왕복 백복 서리복 명부복 일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면적 구성의 직선 재단 • 치마가 사선으로 넓게 퍼진 형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에 비해 도련의 폭이 넓음 • 소매의 폭이 포 길이의 절반 차지 • 겨드랑이에서 이어지는 소매는 일자형 • 17세기 중반은 소매가 겨드랑이에서 시작되어서 소매 끝에서 줄어드는 모양이 특징 	카프탄형
	일본	기모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선적인 실루엣 • 직선형 평면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에 따라서 옷의 폭이나 소매폭, 길이, 깃의 크기 등이 변화 • 개방부분이 많음 • 소매의 겨드랑이 부분의 트임 • 직선형의 깃과 좌우를 포개어 여미는 사선형 전개형 여밈 • 오비라는 허리띠 	
	중국	포 패 치파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선이 곧고 평평한 형태 • 직선재단의 평면적 의복 • 19세기에는 몸에 맞는 실루엣으로 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이나 칼라 • 치마단 슬릿 • 띠 대신 단추사용 	
동남 아시아	태국	파 사바이 파 사롱 파 총카벤 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제하지 않은 사각형의 넓은 천을 두른 후 주름 잡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에 꼭 맞도록 두름 • 남은 부분은 주름을 잡아 정리 • 허리띠 	요의형 (사롱형) 요권의형 (드레이퍼리형)
	필리핀	바린다와크 파다디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롱형태, 직사각형의 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사 뼈 까지 달는 긴 스커트 • 천을 이어 다트에 의해서 모양을 만들고 허리에 묶음 	
	인도네시아	사롱 카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사각형의 천 • 평면재단형의 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목길이의 원통형 치마 • 몸에 두르거나 묶어서 착용 • 스커트는 앞쪽에 주름을 잡거나 엇갈리게 둘러싸는 형태 • 허리띠인 스타젠으로 고정 	
남부 아시아	인도	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레이퍼리형 • 재단이나 봉제를 하지 않음 • (완전한 한 장의 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단 양쪽 끝 가장자리 선장식 • 사리의 끝단 장식부분 	요의형 (사롱형) 요권의형 (드레이퍼리형)
	네팔	보토, 슈루월 츄바 차운반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 소매가 달린 긴 외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여밈을 깊숙이 겹쳐 여밈 • 허리띠를 사용해 고정 및 실루엣 변형 	
	스리랑카	사롱 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랩 오버 직사각형의 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에서 발목까지의 길이의 사롱과 몸에 맞는 블라우스 착용 • 왼쪽 어깨 위에 늘어진 한쪽 끝이 허리에 모아진 긴 천 	
서남 아시아	이란	튜닉 아바야 착치르 차도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선형의 실루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 소매 • 커다란 직사각형 망토 형태 • 바지에 양말이 달려있는 착치르 •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차도르 	몸 전체를 감싸는 형
	아프가니스탄	브르카 키뮤즈 페롱, 톱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굴과 전신을 감싸는 형태 • 험령한 실루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우 얼굴을 가리는 베일형태 착용 	
	이라크	하쉬미 아바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사각형의 망토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의 아랫부분과 소매의 트임 끈 장식 • 발목까지 오는 폭이 넓은 바지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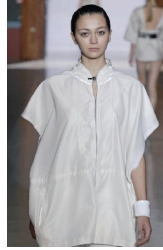
<그림 25> 비블로스
2011 S/S (출처:
<http://www.firstview.com/>)



<그림 26> 로메오 질리
2008 F/W (출처:
<http://www.firstview.com/>)



<그림 27> 랑방
2008 S/S (출처:
<http://www.firstview.com/>)



<그림 28> 코스튬 내셔널
2007 S/S (출처:
<http://www.firstview.com/>)



<그림 29> 글로에
2003 S/S (출처:
<http://www.firstview.com/>)

게 시도되고 있다.

첫째, 비정형화된 형태로 장식성의 절제미를 통해 동서양 융화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 패션에 반영된 복합, 절충적 이미지는 형태가 변형되어 나타나는 과장된 장식을 피하고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직선적 구조로 표현되고 있다. 즉,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위해 단순한 표면재질의 소재와 화려하고 복잡한 구도의 문양을 피함으로 절제의미를 수용하고 있다. <그림 25>는 중국 차이나 칼라, 중국인 노동자들이 입는 옷을 연상시키고 전통적인 흐름을 유지함과 동시에 서양의 느낌을 가미하여 동서양의 적절한 융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6>은 고름 디테일을 가미하여 형태미와 재질감을 부각시켰다. <그림 27>은 직선 형태의 천을 두른 드레이퍼리형 인도풍 아시안 룩의 예로 여러 해에 걸쳐 다수 나타나고 있다. 디자인

의 특징 역시 체형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 개방된 형태로서 모두 서구복식의 폐쇄적, 곡선적 형태와 반대되는 개념을 지닌다 할 수 있다. <그림 28>은 차이나 칼라의 형태를 응용한 합성섬유 소재의 재킷들은 실용적이고 차분한 느낌을 준다. <그림 29>는 인도의 민속복식 중 허리부분을 노출하는 짧은 상의인 초리(choli)를 변형시켜 길이를 길게 표현하였고 금속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인도풍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과장된 왜곡미는 아시아복식의 외적 형식과 상징적 이미지를 유희적 특성으로 부각시켜 서구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상, 종교 등의 내적 의미가 사라지고 단순하게 외적 형식의 요소만을 모방하여 절충하는 양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림 30>은 힌두교 여성들이 의례복식으로 여긴 사리를 과장



<그림 30> 설윤형
2002-2003 F/W (출처:
<http://www.firstview.com/>)



<그림 31> 존 갈리아노
2006 S/S (출처:
<http://www.firstview.com/>)



<그림 32> 설윤형
2002-2003 F/W (출처:
<http://www.firstview.com/>)



<그림 33> 존 갈리아노
2006 S/S (출처:
<http://www.firstview.com/>)



<그림 34> 존 갈리아노
2003 S/S (출처:
<http://www.firstview.com/>)

된 볼륨감과 미스 매치된 프린트와 패턴, 과도한 장식적 요소들로 꾸며 아시아 풍의 문화적 요소와 감성의 절충 및 혼합을 통해 창의적인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다. <그림 31>은 얇고 가벼운 노방을 이용하여 레이어링 하는 방법으로 독특한 색감을 느끼게 하였다. <그림 32>는 한국복식 소매의 배래선을 응용한 작품으로 색동을 함께 사용하여 색채의 대비효과를 통해 유희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33>은 기모노의 실루엣을 기본으로 일본에 대한 화려함이 강하게 표현된 종이접기 기법, 섬세한 자수기법과 화려한 색채를 존 갈리아노 스타일의 부풀어진 소매와 어깨볼륨감 그리고 여러 겹이 겹쳐진 드레스로 연출하였다. <그림 34>는 중국풍 의상을 빅 사이즈로 형태미를 부각시키고 일본의 조리를 응용한 샌들을 표현하여 혼방의 문화적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

IV. 현대 패션에 적용 가능한 아시아지역 민족복식의 디자인 특징

아시아지역 민족복식 형태의 특징은 직선적인 실루엣을 위해 천을 재단과 봉제를 하지 않고 착용자의 바디에 의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디자인 하였으며 착용자에 의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또한 정형화 되지 않은 비구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자연스러운 여유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한편 결정되지 않은 가변성과 풍성함이 조형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시아지역의 민족복식 사례를 고찰한 결과 비정형화된 형태미로 장식성의 절제미와 과장된 왜곡미의 두 가지 상반된 양상이 표현되고 있다. 전통적인 아시아지역 민족복식에는 여러가지 내적 의미를 담고있는 반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아시아지역 민족복식에서는 내적 의미가 사라지고 단순하게 외적 형식의 요소만을 모

방하여 절충하는 양상으로 변화되었다.

아시아지역 민족복식을 고찰한 결과와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아시아지역의 민족복식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현대 패션에 적용 가능한 아시아지역 민족복식의 3가지 조형적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직선적 실루엣의 비구조적인 평면성이다.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기 위한 다프나 라인 등을 가지지 않는 비구조적인 평면성은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나타나며³⁰⁾, 신체와 의복 사이의 일정한 공간을 부여하여 풍성함을 특징으로 표현한다. 자연스러운 여유와 직선적인 선은 형태적 특성으로 활용되어 강조되고 인체를 구속하지 않은 사각형 패턴의 여유, 인체에 대한 최소의 기능성만을 고려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서양 구성학적인 절차를 거부함으로써 신체의 형태를 재해석하고 인위적인 패턴을 부정하는 동시에 모든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순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림 35>는 평면재단과 견직물을 사용한 디자인으로 조각보와 색동, 흑색 기하문을 연상시키는 패턴을 응용하였다. <그림 36>은 바지의 형태를 단순하고 평면적으로 재단하여 윗부분을 끌어올려 허리띠만으로 착용이 가능하게 한 작품이다. 또한 여유로운 상의와의 조합으로 유연함과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조화를 표현하고 있다.

둘째, 유기적인 율동미는 인체에 밀착되지 않는 풍성한 형태로 여유분이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형성하며 유동적인 주름이 다양한 실루엣을 유도한다. 평면으로 구성되는 복식의 착장으로 획일적이거나 인공적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주름의 형태를 형성하고 인체의 움직임에 다양한 율동미를 부각시킬 수 있다. 수직, 수평적 구성선의 거부, 비대칭의 원리 등 균형과 대칭의 속박에서 벗어나 형태에 새로운 생동감과 변화를 추구하여 창작자의 신체적 움직임에 따라 유기적인 율동미의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7>은 끌어올린 치마단의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허리에서 끈으

로 여며 볼륨감을 형성하고 비구조적인 재단에 의한 자연스러운 유기적인 율동미를 통해 공간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38>은 평면적 재단을 통해 입체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혼합된 미를 표현하고 인체에 의해 형성된 풍성한 주름은 면적감을 부각시켜 하나의 조형적 형태감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 형태의 가변성이 주는 비균제적인 미는 현대 복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정하지 않은 형태로 복식형태의 파괴와 기존의 개념을 부정하면서 전위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내게 된다.³¹⁾ 이러한 형태의 가변성은 착용자의 다양한 여밈 방식으로 불균직성, 불완전성 등을 표현할 수 있다. 옷고름의 비대칭은 깃과 비대칭과 함께 균형을 깨는 비균제성의 특징으로 과격의 미를 불러일으킨다.³²⁾ 비대칭, 불균형, 부조화를 바탕으로 인위적이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질체의 미를 보여주며 무형식성을 통해 복식의 기본적인 목적과 기능성을 해체할 수 있다. <그림 39>에서 보이는 바지의 풍성한 형태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허리띠 형태는 착용자의 다양한 착용방식에 따라 풍성한 실루엣과 허리를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성이 있다. <그림 40>은 한국의 전형적인 포 형태를 현대적인 감각에 어울리게 단순화시켰으며 정교하게 누빈 띠를 허리에 둘러 포의 평면적인 구성을 입체적으로 연출하는 미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V. 작품제작

아시아지역의 민족복식 특징과 현대 패션에 응용된 아시아복식의 특징을 디자인 조형요소로 분석하고 현대 패션에 적용 가능한 아시아지역 민족복식의 조형적 특징을 3가지로 추출하여 총 10점의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작품의 전체적인 형태는 직선적이고 비구조적이며 평면적인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인체와 의복간의 공간감, 유기적인 율동미, 인위적이지 않은 비구조적인 조형미, 형태의 가변성으로 인한 현대적 미를 표현하였다. 소재는 평면적 구성에서 비롯되는 미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실크, 면, 마, 울, 퍼를 응용하고 공단과 캐시미어 혼방을 사용하였다. 컬러는 오렌지, 그린, 블루, 퍼플, 바이올렛, 무채색 등을 사용하였고 문양은 현대적 이미지로 재해석된 자연친화적인 것을 사용하였다. 디테일은 인체의 흐름에 맞는 자연스러운 주름, 착용과 활동에 용의하도록 트임을 만들고 비대칭의 사선 여밈과 드레이프성, 전통복식의 복잡한 착용방식을 단순화하여 활동성을 강조하였다.

<작품 I>의 형태는 서양의 볼레로와 동양의 저고리에서 모티브를 얻어 저고리의 깃을 없애고 옷고름을 축소시켰다. 소재는 현대패션에 자주 등장하는 시스루 룩인 노방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색채는 전체적인 무채색에 소매부리를 노란색으로



<그림 35> 오은환
2003 S/S (출처:
<http://www.firstview.com/>)



<그림 36> 김삼숙
2003 S/S (출처:
<http://www.firstview.com/>)



<그림 37> 김선자
2002 F/W (출처:
<http://www.firstview.com/>)



<그림 38> 진태옥
2009 F/W (출처:
<http://www.firstview.com/>)



<그림 39> 설운형
2003 F/W (출처:
<http://www.firstview.com/>)



<그림 40> 이영희
2004 F/W (출처:
<http://www.firstview.com/>)

표현하였고 복잡했던 전통적인 착장방식에서 벗어나 단순한 여밈을 통해 착장방식을 간소화시켜 생활화 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I>는 아시아 복식의 직선적이고 비구조적이며 평면적인 형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직사각형의 넓은 천에 옷깃과 소매 등을 덧붙여 두루마기형 상의를 디자인하였다. 사각의 천에 띠를 두르는 아주 간단한 구조로써 입었을 때 일정한 형태가 없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듯한 스타일로써 움직임에 따라 유동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복잡한 착장방식을 단순화하여 자유로운 여밈의 착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색채는 청색에 붉은색이 도는 투톤 원단을 사용하여 동서양의 융화를 상징하였고 소재는 폴리혼방을 사용하였다. 디테일은 옷고름 부분의 트임을 주어 옷고름이 자유롭게 착장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작품 III>은 직선적 실루엣의 직사각형의 넓은 천에 직선형의 소매를 붙이고 옷깃을 없애 여밈의 착장 방식에 구애받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다. 입체적인 부피감을 나타내면서 이미 계획된 형태감을 강조하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아시아지역 민족 복식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인 허리띠를 디테일 포인트로 넓게 만들어 복부를 충분히 감싸는 체형보완과 함께 자유로운 착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형태의 가변성을 주었다. 색채는 자주색을 사용하였으며 소재는 자연친화적인 문양으로 구성된 공단을 사용하였다.

<작품 IV>는 평면적이며 비대칭의 사선 여밈을 통해 유기적인 울동미가 느껴지는 형태의 가변성이 나타나도록 표현하였다. 자연스러운 여유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한편 결정되지 않는 가변성과 풍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형태미를 갖도록 디자인하였다. 색채는 초록색을 사용하였고 소재는 마를 사용하였다.

<작품 V>는 장방형의 천에 소매를 붙이고 옷깃을 넣지 않음으로써 가변적인 형태와 깃 부분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드레이퍼리를 표현하였다. 또한 다트를 잡지 않고 평면적인 형태로 인체와 의복간의 공간감을 주었다. 색채는 자주색을 사용하였고 소재는 면을 사용하였다.

<작품 VI>은 직선적인 형태의 재킷으로 깃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길과 이어지도록 하였다. 색채는 회색과 주황색을 사용하였으며 소재는 실크와 면을 사용하였다. 디테일은 기하학적인 문양을 주황색의 실로 마감을 하지 않은 것과 옷고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착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계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작품 VII>은 인체의 실루엣을 살리지 않은 직선적인 형태로 현대적인 느낌의 라운드 네크라인을 표현하였다. 색채는 검정색을 사용하였고 소재는 천연섬유인 면을 사용하였다. 디테일은 기하학적인 문양과 작은 단추로 여밈을 표현하고, 밑단에 트임을 주어 활동성을 강조하였다.

<작품 VIII>은 직선적인 형태의 조끼 형태로 비구조적인 조형미와 형태의 가변성이 나타나도록 표현하였고 유기적인 울동미가 특징이다. 또한 인체의 실루엣을 부각시키지 않는 넉넉한 품으로 인체와 의복간의 공간감을 표현하였다. 소재는 부드러운 공단과 캐시미어 혼방을 양면으로 사용하고, 색채는 파란색과 아이보리색을 사용하였다. 디테일로 공단에 표현된 자연과 관련된 꽃문양을 사용하여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IX>는 장방형의 천에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축 늘어뜨려진 선과 혈렁한 소매로 인하여 권의의 효과도 나타내고 있으며, 옷의 조각들은 체형에 맞추었다기보다는 거의 직사각형으로 천을 똑바로 이어 맞춤형인 혼합형으로 디자인하였다. 색채는 회색과 아이보리, 금색을 사용하였으며, 소재는 캐시미어 혼방과 금사로 된 당초문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X>은 두루마기형의 상의로 인체의 곡선을 살리지 않은 직선적인 형태로 인한 인체와 의

복 사이의 공간감을 형성하고 그로인한 유기적인 율동미와 형태의 가변성을 표현하였다. 색채는 파란색과 회색을 사용하였고 소재는 면과 실크를 사용하였다. 디테일 포인트는 비대칭의 사선 여밈이 특징이다.

아시아지역의 민족복식을 응용한 디자인 10점을 디자인의 조형 요소별 구성 및 특징으로 분류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디자인 조형 요소별 작품의 구성 및 특징

	작품 I	작품 II	작품 III	작품 IV	작품 V
사진					
형태					
색채					
소재	노방	폴리혼방	공단	마	면
디테일	단순한 여밈, 소매부리 색상	비대칭 사선 여밈	허리띠	비대칭 사선 여밈, 드레이퍼리	드레이퍼리
	작품 VI	작품 VII	작품 VIII	작품 IX	작품 X
사진					
형태					
색채					
소재	실크, 면, 기하학적인 문양	면	실크, 퍼	캐시미어 혼방, 금사로 된 당초모양	면, 실크
디테일	단순한 여밈	라운드 칼라, 단추	비대칭 사선 여밈, 드레이퍼리	비대칭 사선 여밈	비대칭 사선 여밈

VI. 결 론

서양 복식의 영향으로 인해 아시아지역의 민족 복식은 전통의례의 예복과 축제복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최근 타 문화권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동양적 세계관의 주목으로 인해 아시안 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아지역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교류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식을 발전 시켜왔다. 그러므로 아시아 특정 지역에 대한 고찰이 아닌 아시아 전 지역의 민족복식에 관한 연구와 현대 패션에서 응용되고 있는 아시안 룩의 형태미를 통해 복식의 융합된 형태를 반영한 아시아지역의 민족복식을 응용한 패션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아시아 지역을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남부아시아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디자인을 실루엣 중심의 형태적 특성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현대 패션에서 아시아 지역의 민족복식이 응용된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여 공통된 특징을 도출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통해 현대 패션에 적용 가능한 아시아지역 민족복식의 형태적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정립한 후 10점의 패션디자인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첫째, 아시아지역 민족복식 형태는 각 나라의 종교, 사회,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한 실루엣과 형태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 중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태적 특성은 단순하고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착용자의 바디에 의해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으로 착용자에 의해 벨트와 끈으로 다양하게 연출되고 있었다. 또한 정형화되지 않은 비구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자연스러운 여유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한편 결정되지 않은 가변성과 풍성함이 조형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었다.

둘째,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아시아 룩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비정형화된 형태미로 장식성의 절

제미와 과장된 왜곡미의 두 가지 상반된 양상이 표현되고 있다. 내적 의미보다는 외적 형식의 요소만을 응용하여 표현하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셋째, 아시아 지역의 민족복식에서 보이는 특징과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아시아복식의 특징을 디자인 인 특징으로 분석하고 현대 패션에 적용 가능한 아시아지역 민족복식의 형태적 특징을 직선적 실루엣의 비구조적인 평면성, 유기적인 울동미, 형태의 가변성으로 도출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해 현대 패션에 적용 가능한 아시아지역의 민족복식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작품제작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면형의 직선적인 실루엣을 통한 공간적인 형태미는 아시아 룩의 전통미를 표현해 주는 동시에 현대 패션의 조형적 요소로도 활용되고 있어 현대적인 재해석을 할 경우 그 가능성이 무한하다.

둘째, 아시아지역의 민족복식에서 보이는 자유로운 여밈은 다양한 비균제적인 미를 표현하는 방법이며 특히 현대적인 이미지로 비례, 균형, 울동미 등을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그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구조적인 평면성을 통해 근본적인 선을 발전 변형시킨 디자인 개발은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이 가능하여 패션 테마의 다양성과 확대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와 과거는 인간 중심적이며 자연친화적 이미지로 아시아복식의 평면적인 형태와 다양한 색상, 전통성을 고수하면서 이것을 이용하여 서양의 미와 조화시켜 복합적이고 창조적인 패션을 보여 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아시아지역의 민족복식을 응용한 패션디자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지역의 민족복식이 세계화, 현대화, 생활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지나치게 넓은 연구 범위 설정으로 인해 각 국의 민족의상이 가지는 소재, 문양의 고유성이 부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각국의 고유성과 아시아 복식의 공통점이 융합된 발전된 디자인 개발이 있기를 기대한다.

- 29) 안명숙, 장애란. 앞의 논문, pp.105-106.
- 30) 양정숙 (2003). 한국복식의 조형성을 응용한 디자인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12.
- 31) 위의 논문, p.67.
- 32) 위의 논문, p.58.

참고문헌

- 1) 최세완 (1992).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 2) 금기숙 (1994). 조선복식미술, 서울: 열화당, p.33.
- 3) 유이황, 송은선, 옥영진 (1996).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pp.58-59.
- 4) 위의 책, p.57.
- 5) 위의 책, p.41.
- 6) 위의 책, pp.42-43.
- 7) 위의 책, p.48.
- 8) 위의 책, p.50.
- 9) Kahlenberg, M. H. (2001). Asian Costumes and Textiles, Itary: skira, p.257.
- 10) 안명숙, 장애란 (1998). 아시아지역의 민족복식 연구, 광주대학교 민족예술연구소 논문집, 7(-), p.92.
- 11) 홍나영, 신혜성, 최지희 (2004). 아시아 전통복식, 서울: 교문사, p.51.
- 12) 하수정 (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이미지 비교 분석: 동 서양 패션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 13) 위의 논문, p.29.
- 14) 홍나영, 신혜성, 최지희. 앞의 책, p.57.
- 15) 위의 책, p.33.
- 16) 위의 책, pp.39-44.
- 17) 안명숙, 장애란. 앞의 논문, p.89.
- 18) 홍나영, 신혜성, 최지희. 앞의 책, p.79.
- 19) 위의 책, pp.82-85.
- 20) 위의 책, p.84.
- 21) 안명숙, 장애란. 앞의 논문, p.91.
- 22) 네이버 백과사전(검색어: 사야), 자료검색일 2011. 6. 1. <http://100.naver.com/100.nhn?docid=83864>
- 23) 홍나영, 신혜성, 최지희. 앞의 책, p.93.
- 24) 위의 책, p.99.
- 25) 위의 책, pp.94-95.
- 26) 위의 책, pp.121-122.
- 27) 위의 책, p.166.
- 28) 위의 책, p.169.

A Study on Fashion Design Applying the Formative Beauty of Ethnic Costumes of Asia

Lee, Jae Jung · Kim, Youn Hee⁺ · Son, Min Joo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Master's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Techno Design, Kookmin University

Abstract

In the 20th century, Asia started to stand out as an important position historically in terms of politics and the economy, and Asian style surfaced as one of the cultural trends that leads global culture as it combines with cultural factors such as modern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id planning of a product that reflects a mixed form of costume history of Asia by developing a design based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ethnic costumes of the Asian region which can be applied to contemporary fashion. Theoretical examination and analysis was conducted on cases of Asian style presented in contemporary fashion since the year 2000 and through precedent studies and literature about ethnic costumes of Asia from the end of the 16th century to 19th century. The results show that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ethnic costume of the Asian region that can be applied to contemporary fashion are as follows: first, a plaintive planar characteristic of a linear silhouette, second, organic rhythmical beauty, third, variability of form, and fourth, symbolic expression of external elements. 10 types of designs that applied ethnic costumes of Asia were developed through formative approaches based on the four formative characteristics abov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of fashion design production that applies ethnic costumes of the Asian region to contemporary fashion is as follows: First, the formative beauty of space implemented through a planar straight line is utilized as a sculptural element of contemporary fashion while simultaneously highlighting the features of Asian tradition, and thus offers limitless potential when re-interpreted to a contemporary perspective. Second, the free adjustment in the ethnic costumes of Asia is a way of expressing diverse asymmetric beauties, and if expressed properly with the use of elements such as proportion, balance and motion from a contemporary perspective, presents limitless potential. Third, designs developed through modification of base line on a non-structural plane can be re-organized in a contemporary sense, and can accommodate extensive themes of fashions.

Key words: Asia, ethnic costume, plaintive planar characteristic, organic rhythmical beauty, variability of form